

- 주요 뉴스: 미국 주가, 4일 연속 하락.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경기침체 우려 등이 반영
 - 미국 10월 무역수지, 적자 폭 확대. 4/4분기 성장률 전망에 부정적 영향 예상
 -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, 추가 금리인상 필요. 인플레이션은 정점에 근접
 - 일본은행 총재, 초저금리 기조 지속할 방침.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시간 요구
 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 주가 하락[-1.4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하락[-4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경기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 등으로 매도 증가
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관련주 약세 등으로 0.6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
 유로화와 엔화가는 모두 0.2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침체 가능성 등이 주요 원인
 독일은 ECB 위원들의 금리인상 폭 축소 의견 제시 등으로 8bp 하락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19.7원, +0.9원) 0.1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12/6일	12/5일	전일대비			12/6일	12/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941.3	3,998.8	-1.44%	국채 금리 10y	미국	3.54%	3.57%	-4bp
	유럽	438.92	441.47	-0.58%		독일	1.80%	1.88%	-8bp
	중국	3,212.5	3,211.8	0.02%		영국	3.08%	3.10%	-3bp
	일본	27,886	27,820	0.24%		CDS 5y	한국	53bp	52bp
	한국	2,393.2	2,419.3	-1.08%	중국		79bp	76bp	3bp
환율	달러지수	105.58	105.29	0.28%	위험 지표	EMBI+	-	379	-
	유로화	1.0466	1.0491	-0.24%		VIX	22.17	20.75	6.84%
	엔화	137.04	136.75	-0.21%		WTI유	74.25	76.93	-3.48%
	위안화	6.9950	6.9625	-0.46%	원자재	구리	381.2	379.0	0.59%
	원화	1,318.8	1,292.6	-1.99%		금	1,771.2	1,768.7	0.14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주가, 4일 연속 하락.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경기침체 우려 등이 반영

- 12/6일 주요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(S&P500 -1.44%). 중국 경제활동 재개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등이 투자심리를 저해. S&P500 지수는 4일 연속 하락(하락률은 -3.40%)
- 주가는 11월말까지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으로 상승세 나타냈으나, 이후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및 이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이 부각
- 전문가들은 연준이 그 동안 시행했던 통화긴축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, 경제지표가 좀 더 분명한 경기둔화 신호를 발신하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
- 한편, 이날 주요 투자은행도 경기침체 가능성을 제시. JPMorgan의 제이미 다이몬 CEO는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으로 향후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. 또한 연준이 최종금리를 5.0%까지 인상할 것으로 추정되나, 이 역시 인플레이션 억제에 부족할 수 있다고 진단
- BofA의 브라이언 모이니한 CEO는 내년 상반기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. 다만 경기침체 수준은 약할 것으로 전망. 골드만삭스의 David Solomon CEO는 경기둔화 우려로 투자자들이 매우 신중한 자세를 나타낸다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10월 무역수지, 적자 폭 확대. 4/4분기 성장률 전망에 부정적 영향 예상

- 10월 무역수지는 782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월(-732억달러) 대비 적자폭 증가. 이번 결과는 글로벌 수요 둔화 및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 등에 기인.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4/4분기 성장률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

■ 미국과 EU, 중국을 겨냥하여 철강에 탄소 배출 관련 관세 부과를 검토

- 블룸버그에 따르면, 양측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탄소 배출 관련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여 글로벌 과잉생산 및 탄소 배출을 줄일 계획. 이는 중국을 목표로 하는 조치. 이로 인해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될 소지

■ 미국의 내년 원유 생산,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전망

- 내년 원유 생산은 일일 1234만배럴을 기록하여 이전 사상 최고였던 '19년의 1232만배럴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. 이는 셰일 오일 생산 부진에 따른 우려를 완화시킬 전망. 한편, 금년 석유 굴착 장비의 수는 연초 이후 30% 증가

■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, 추가 금리인상 필요. 인플레이션은 정점에 근접

-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향후 수차례의 금리인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. 반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도 존재하며, 그 동안 시행한 통화긴축 조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
- 사이프러스 중앙은행 헤로도투 총재는 정책금리가 중립 수준에 매우 근접해있다고 진단. 12월 회의에서 금리인상 폭은 현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발언. 다만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참고해야 한다고 첨언

■ 세계무역기구(WTO), 각국의 무역 규제가 식품부문 중심으로 강화

- 세계 각국이 무역제재의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, 특히 식품 및 비료 부문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. 러-우 전쟁 이후 78개 무역 규제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가운데 57개가 아직 존재한다고 지적. 반면 코로나 19 제품 관련 무역 규제는 80% 이상 철회되었다고 설명

■ 일본은행 총재, 초저금리 기조 지속할 방침.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시간 요구

- 구로다 총재는 계속해서 임금상승을 동반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.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부연

■ 호주 중앙은행, 정책금리 0.25%p 인상. 추가 금리인상 필요

- 정책금리를 0.25%p 높은 3.10%로 결정했으며, 이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. 로우 총재는 향후 금리경로는 확정되지 않았고, 경제지표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발언. 다만 현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예상할 수 있다고 언급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2/7 현지시각 기준)

- ECB 파네타 및 레인 이사 강연, 미국 10월 소비자신용 잔액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새로운 다극화 시대, 투자자들의 대비가 필요 - Financial Times

(Investors need to adapt to the new multipolar world)

- 많은 위험 중 '22년 고조된 위험은 세계의 다극화. 중국의 부상 이후 세계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라우 전쟁, 중국대만 갈등 등으로 변화가 더욱 가속화
-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화로 인해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,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저물가 여건이 조성. 그러나 최근 세계화 쇠퇴 환경에서 생산비용과 국방 및 에너지 안보 비용 증가 등으로 성장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불가피
- 일부 국가들은 달러화 기반 금융시스템 의존도 축소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으며 정책당국은 외교·경제를 넘어 환경·문화까지 고려할 필요. 투자자들은 에너지 전환, 공급망 안정, 안보 강화 등 다극화 시대에 대비한 자본 재분배가 요구

■ 미국 경제, 저축 효과에 의한 경기침체 지연은 한계에 봉착할 전망 - 블룸버그

(Money Can't Buy You Delay From a Recession Forever)

- 내년 경기침체 전망에도 견조한 소비지출 등 경제지표는 비교적 양호. 이는 코로나 사태 기간 가계가 축적한 저축 등에 기인. 그러나 가계 저축은 감소하고 있으며 양호한 소비가 가능한 수준의 저축은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 가능한 것으로 추정
- 저축 감소로 가계의 소비가 필수소비재 중심으로 재편되면, 임의소비재 가격의 하락이 예상. 이는 기업이익 감소와 함께 '23년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의미. 견조한 노동시장이 조성되지 않으면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될 소지
- 내년 여름 연준이 금리인하를 시작해도 관련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. 이에 통화완화에 따른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전망

■ 미국의 주거비용, 하락 지속 예상. 다만 물가목표 달성은 임금이 관건 - WSJ

(Housing Costs, Inflation's Biggest Component, Are Poised to Ease)

- 그 동안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주거비가 증가했으나, 최근 신규 임대료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하락. 이에 월 임대료 상승은 정점을 지났을 것으로 판단. 일부에서는 연준의 물가목표가 '24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추정
- 그러나 수요우위 노동시장 영향으로 임금상승이 지속되면 전반적인 물가상승세를 제어하기는 어려울 가능성. 실제로 11월 연간 임금상승률은 전월대비 상승 (4.9%→5.1%)했으며 임금이 향후 물가안정 여부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

■ **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, 일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 - Financial Times**

(The west's messy Russian oil price cap begins to bite)

- 12/5일부터 EU는 러시아산 원유 해상운송분 금수 조치 및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으며 미국, 영국, 여타 서방 국가들도 동참. 이는 글로벌 원유시장 사상 가장 강력한 개입 중 하나로, 재제 영향은 러시아, 서방,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신흥국에 의해 좌우
- 단기적으로 가격 상한선인 배럴당 60달러는 기존 러시아 원유가 거래되던 가격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전쟁 자원인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제한하려는 서방의 노력은 큰 영향이 없을 전망.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 적용 국가에 원유를 판매하지 않을 방침
- 만약 시장에 대규모 원유 공급 중단이 발생하면 가격 급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, 러시아 원유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가 EU-G7의 재재를 따를지도 미지수. 서방의 선박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문서 위조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할 우려 내재

■ **미국 레포 금리,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등으로 상승세 지속할 전망 - 블룸버그**

(Repo Pressures Join Fed Hikes in Driving Up Dollar Funding Cost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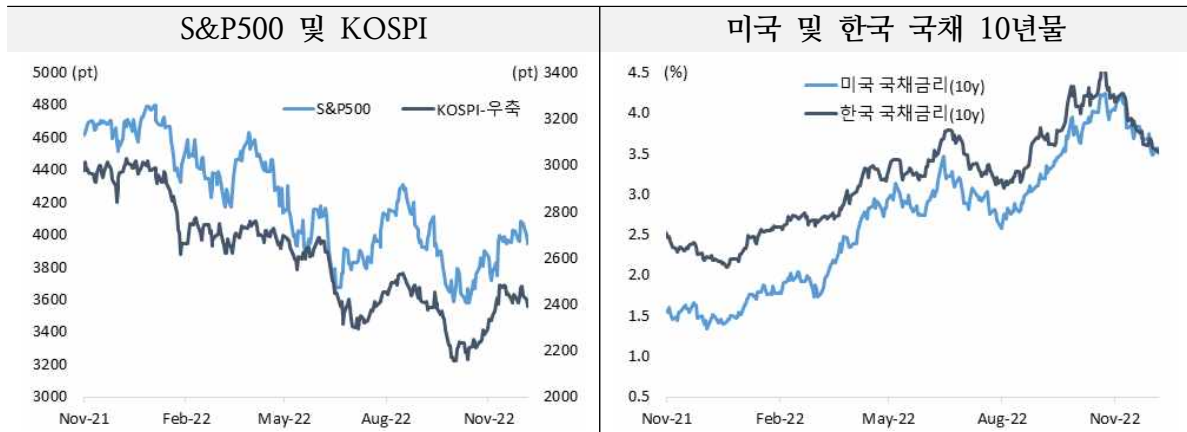
■ **미국의 ESG 관련 비일관적 규제, 기업의 사업전략 마련에 어려움 초래 - Financial Times**

(Business is caught in political crossfire of ESG disputes)

■ **중국 투자등급 채권 수익률 급등,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가 반영 - 블룸버그**

(China's Safest Credit in Worst Selloff Since 2017 on Good News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